장성 동화·삼계·동화전자·나노산단 등 4곳

한국산단공단에 관리업무 위탁

기술혁신·경쟁력 강화 등 기대

장성군(군수 유두석)이 전국 최초로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했다.

유두석 장성군수와 조보훈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동화농공단지 협의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공단지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위탁대상은 현재 가동중인 동화·삼계농공단지와 신규 조성중인 동화 전자농공단지,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 등 4개 단지다.

협약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그동안의 관리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성군 소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공단지 우수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계약부터 공장등록, 경영활동 지원업무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사항은 산학연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업체의 생산활동 및 경영정보, 기업경영개선을 위한 자금, 홍보마케팅, 기술혁신역량강화 등이다.

위탁 대상인 동화농공단지는 3만평 규모로 지난 1988년에 조성돼 현재 12개업체가 고용인원 736명, 연간 매출액 1천4백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삼계 농공단지는 가동율이 91%에 그치고 있지만, 이번 관리업무 협약체결로 경영개선과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조성중인 9만평 규모의 동화전자농공단지와 27만평 규모의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도 산업단지공단이 입주 승인업무 등을 맡게 된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나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특별 이벤트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나주초등학교가 9일 입학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날 나주초등학교 전교생 300여명은 학교 운동장에 모여 고깔을 머리에 쓰고 풍선을 흔들며 하트 모양과 100이란 숫자를 만들었다. 김윤섭 교장은 "학생들에게 꿈과 소망을 불어 넣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난방용 유류 도난 예방 경보기 설치

고흥 대서파출소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소장 서한선)가 10일 난방용 유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2개소에 경보기를 시범설치했다.

대서파출소는 시설하우스 유류탱크 주입구의 뚜껑을 열거나 온풍기로 유입되는 호스를 절단해 기름을 훔쳐가는데 착안, 유류탱크에 센서를 부착했다.

대서파출소는 예방효과가 좋을 경우 경보기 부착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백제 왕인 박사 행차요!"

영암, 서울 인사동 일대서 '왕인축제' 홍보 행사 가져

영암군이 1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왕인문화축제 홍보 퍼레이드를 열었다.

김일태 영암군수를 비롯한 신락현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장, 재경영암향우회 회원 등 100여명은 이날 종로구 인사동에서 '백제시대 왕인박사 행렬'과 '조선시대 포도대장 행렬'이 만나는 왕인박사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또한 왕인문화축제를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영암 퀴즈 쇼', '천자문을 잡아라'와 영암 관광 기념품, 농특산물 전시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졌다.

천자문 등 고대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 아스카문화를 꽃피우게 한 왕인박사의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킬 왕인문화축제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열린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여수 3개 섬마을 '원어민과 ABC…'

GS칼텍스 지원키로

여수지역 3개 섬 마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올해 신학기부터 원어민 강사로부터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게 됐다.

GS칼텍스는 10일 "여수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3개 도서지역 초·중학교 23곳(분교 13개교 포함) 학생 28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첫 수업은 12일 남면 우학리 여남초교에서 여수교육장, 장학사, 도서학교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어민 영어교실 협약식을 가진 후 실시된다.

GS칼텍스는 이번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위해 영어교사(TESOL) 자격증을 갖춘 캐나다 국적의 원어민 전문 강사 2명을 초빙했다.

이들 원어민 강사는 내년 2월까지 3개 면 소재 초등학교 4~6학년생 140여명, 중학교 1~3학년생 140명을 대상으로 매주 2차례씩 1회당 2교시(90분)씩 영어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시의회, 산단내 市 소유부지 2,600평 매각 결정

유망 中企 중국 이전 막았다

신성메이저글러브, 7월부터 공장 증설 공사

자칫 해외로 빠져 나갈 뻔한 유망 중소기업체가 지방의회의 부지 매각 결정으로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임시회에서 순천산단내 시 소유 공장부지 2천600평을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매각이 결정된 부지는 공업용 특수 장갑 제조업체인 ㈜신성메이저글러브(이하 신성) 공장 부지 인근으로 지난 2001년 공원부지에서 공장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시는 산단 활성화를 위해 신성측이 요구한 공장부지 2천600평의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에서 그때마다 유보 또는 부결 결정을 내려 매각이 무산됐다.

신성메이저글러브 직원들은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순천시와 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실제 중국으로 공장 이전까지 계획했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날 공장 부지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신성측은 상반기 중 시와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부터 공장 증설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성측 관계자는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장 건축 부지가 절실했는데 뒤늦게나마 매각 결정이 나와 기뻐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 수출역군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금산면 전 지역은 '친환경농업지구'입니다"

고흥군 지정 선포식 가져

고흥군이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을 갖춘 금산면 전 지역을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하고, 친환경 농업 모델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지난 8일, 금산면 거금도 농협에서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및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농업지구 선포식'을 갖고 금산면 전 지역을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했다.

군은 이번 선포식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환경친화적인 농업모델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참가자들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우선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을 통해 환경보존은 물론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